

신불출(申不出)의 문예활동과 그 의미

김 경 희 (서울대)

1. 서론
2. 문예활동 검토
3. 흥미 표현
 - 3.1. 상황적 흥미
 - 3.2. 언어적 흥미
4. 주제 의식
 - 4.1. 세태 비판
 - 4.2. 대중 교화
5. 결론

1. 서론

웃음은 사람들에게 순간의 즐거움과 함께 두고두고 행복을 선사한다. 일소일소(一笑一少), 일노일노(一怒一老),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라는 말처럼 선인들의 삶 속에서나 현대 우리네 일상에서 웃음은 생활의 활력이 되고 있다. TV 오락물에서 코미디나 개그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말 잘하고 재미있는 사람은 단연 돋보이게 된다. 신불출은 1930년대와 40년대를 이끌어 나간 이야기꾼¹⁾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1) 신불출을 '이야기꾼'이라고 설정한 것은 신불출이 평론, 만담, 희곡의 창작과 연극에서 배우로 활약하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활동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이야기 속에서 웃음을 주는 것, 비판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웃음을 주는 이야기를 재담이나 만담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화할 수 있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대석(『한국 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연구』, 서울대출판부, 2004.)은 언어의 묘미를 살려서 재치 있게 이야기하여 재미를 돋우어 내는 이야기를 '재담'으로 보았다. 뒤에서 논하겠지만 신불출은 재담이라는 용어 대신에 '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재담이나 만담, 야담은 당대 사람들이 나름의 필요성에 따라 개념을 분류하여 사용하였던 용어였다. 본고에서는 용어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신불출이 여러 문예 활동을 펼친 것을 '이야기꾼'의 관점에서 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다.

신불출에 대한 자료는 고설봉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야기²⁾와 반재식의 정리³⁾, 당대 함께 활동했던 이은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또한 유성기음반자료⁴⁾를 통하여 실제로 신불출 만담을 만날 수 있었다. 신불출은 초기에 연극배우로 활동하면서 직접 희곡을 창작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연극계에 비판적인 시각을 던지기도 하였다. 세상에는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만담가(漫談家)로 가장 널리 알려졌다. 신불출에 대한 연구는 신불출 개인의 뛰어난 만담의 세계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학지희(笑謔之戲)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스운 이야기의 계보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사진실⁵⁾은 20세기 초 박춘재의 재담을 분석하여 그의 재담이 우리의 전통적 재담을 이어받고 있으며 나아가 만담으로 전승된 축을 따라 방송 코미디물의 토대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소학지희에서 현대까지의 이야기의 전통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 더 많은 이야기꾼들의 업적과 이야기 세계가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전통적 재담의 흐름을 잇는 연결선상에 박춘재에 이어 신불출을 놓음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바램이다. 신불출 이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꾼들이 현대 이야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 주었지만 박춘재의 뒤를 이어 독창적인 이야기 세계를 펼친 신불출에 대한 논의가 지금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문예활동 검토

신불출은 광복 이후에 율북하여 생몰 연대가 확실하지 않아 생애를 정리

라보고자 한다.

- 2) 고설봉, 『병하시대의 연극마당 배우세상』, 이가책, 1996.
- 3) 반재식, 『만담 백년사』, 백중당, 2000.
- 4) 최동현, 김만수, 『일제강점기 유성기 음반속의 대중희극』, 태학사, 1997.
- 5) 사진실, 『배우의 전통과 재담의 전승—박춘재의 재담을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10. 한국고음반연구회, 2000.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문예활동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는 공연 자료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당시에 신불출과 함께 활동했던 인물들의 증언과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공연 자료집에 의존하여 생애와 문예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이야기 세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나의 스승 양백명이 개성지방으로 공연갔을 때의 일이었다. 한 청년이 연극을 하겠다고 극단을 찾아왔는데, 이름은 신흥식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신불출이었다. 신불출은 독학을 하면서 다방면의 책을 읽었다.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선배들에게 물어서 꼭 짚고 넘어가는 노력과였다.⁶⁾

[2] 신불출은 무대 경험을 쌓으면서 깨끗하고 담백한 연기를 하는 배우로 인정받았다. 신불출은 「사생결단」이라는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시절에는 전 3막의 연극을 할 경우 1막을 남겨놓고 막간에 나가 막설⁷⁾을 하였다. 막설의 내용은 관객들이 와주어 감사하다는 말과 마지막 막의 내용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불출은 그 막설을 기가 막히게 잘하였다.⁸⁾

[2-1] 신불출은 단성사에서 공연된 <동방이 밝아온다>(1933.8)에서 주연을 맡았다. 신불출은 워낙 즉흥대사를 잘 하는 연기자였다. 그는 공연 도중 “새벽을 맞아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납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 관객이 환호를 보내자 흥분한 신불출은 “여러분, 삼천리 강산에 우리들이 연극할 무대는 전부 일본사람 것이고, 조선인 극장은 한두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동포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야 합니다.”……신불출은 곧장 종로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단성사 사장 박승필의 보증으로 연극 은퇴 서약을 하고 풀려났다. 신불출이 할일 없이 놓고 있는 동안 총독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도회지에서는 교풍회, 시골에서는 농촌진흥회를 만들어 생활 계량 국민 운동을 펴고 있었다. 우선 미신을 타파하는 일

6) 고설봉, 앞의 책, 160면.

7) 막간에 나가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한다. 막간은 공연 중간에 막이 내린 후 다음 막이 오를 때까지를 가리키는데, 1920년대 후반부터 관객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출연가수가 노래를 부르거나 단장이 나와 다음 공연을 소개하는 짧은 공연이 이루어졌다.

8) 고설봉, 앞의 책, 161-162면.

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 신불출은 이 미신 타파의 바람을 타고 총독부에 미신 타파용 만담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았다.⁹⁾

[3] 특히 그는 평소에 박춘재에 대한 평가를 매우 높게 해 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물론 명창이면 명창, 재담이면 재담가 어느 한쪽만을 두고 하는 평가는 아니었다. 명창이면서도 재담에도 능한 그의 능력을 두고 한 말이었다. 만담 원고를 직접 쓰고 직접 연기했던 그의 당대 명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의식이 어떠했는지를 말해 주는 간접적인 본보기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¹⁰⁾

[4] 漫談의 天才 申不出 京鄕間大人氣; 종로거리였던 축음기상회에서 흘러 나오는 「익살마진대머리」 타령에 흥이 겨워 었던 六十가량된 노인이 발을 멈추고 그 노래를 정신업시듯다가 대사중에 「히히」 거리고웃는 데가 있자 그 노인도 소리를 뉴히고 썰어우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박장대소하사건이 수일전에 잇섯다. 그 대머리타령을 취입한 사람은 만담계에 일음이 뉴흔 신불출(申不出)군이니 그만하면 신군의 만담이 어느 정도까지 인기가잇는 것을 누구이나 짐작할 수 잇슬것이다. 동군이 만담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十八세 되 든 해에 취성좌(聚星座)라는 극단에 들어가 문예부 일을 보며 「배재나갈재」라는 극(劇)에 출연을 하여 인기를 었고 그후부터 막간 「년센스」를 하여 수 만흔관객에게 끈임줄몰으는 환영과 갈채를 밧엇다. OK 「레코드」 회사가 창립제때 그곳에서 전속으로 초빙하여 년센스 「익살마진대머리」를 너은 것이 우연히 인기가 비등하게 되메 짜라서 각잡지사에서 소개하게되엇다. 군은 개성에서 송도고보(松都高普)에 학적을 두고 수년간 수학하다가 중도에 퇴학하여 전기취성좌에 발을 드러노케된 것으로서 금년 廿八세되는 청년이니 압날을 기대함도 만커니와 현재만담으로는 경향을 동하여 엄지손가락을 꼽고잇는 처지다. 우물과 오뇌로 질거움을 몰오고 사는 우리 인생으로하야금 한재나마 입을 열어 웃게하니 그 공도 적다고 할 수 업다.¹¹⁾

위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신불출은 개성 사람으로 본명은 신흥식이다.

[1] 에서 [3] 까지는 주로 고설봉의 증언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4] 는

9) 고설봉, 앞의 책, 164-166면.

10) 반계식, 앞의 책, 65면.

11) 매일신보, 1935.1.3.

당시에 인기가 많던 신불출에 대한 기사이다. [1] 에서 [3] 까지 이루어진 이야기를 [4] 와 비교해 보면, 신불출은 송도고보를 중퇴하고 한문에 조예가 깊고 능력이 뛰어나며 지식이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만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극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다 막간(幕間)에 나가 관객을 웃기는 솜씨가 뛰어나 레코드로 취입하게 된 <익살마전대머리>가 거리거리마다 울려 퍼지면서 흥행에 성공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만담가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신불출은 1940년 무렵부터는 박천복, 이은관, 김윤심과 함께 전국 순회공연을 다녔다. 꼽추춤의 명인 박천복과 ‘배뱅이굿’의 명인 이은관과 함께 만담 공연을 다녔다는 것은 당시 관중의 오락적 취향은 물론 신불출의 현실 감각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관중은 아직 재담적인 요소가 있는 웃음을 더 편하게 즐기고 있었으며 이를 간파한 신불출은 재담과 만담을 적절히 섞어 이미 독립된 장르가 된 만담을 계속 활성화시키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5] 申不出 西大門署에 拘禁 국가 모독죄로 말성을 이르킨 만담가 신불출(申不出)은 종로 五정목동□□병원에 입원중이었는데 十三일 밤 열한시경 서대문서에 구금되었다.¹²⁾

[5-1] 申不出 軍政裁判에 六, 十 기념일날 소위 국기 모독□ 「큰코다친다」는 만담 문제로 군정재판에 회부된 신불출(申不出) 등 기념대회 주최책임자인 영화동맹추진 영인에□□군정재판은 二십 四¹³⁾일 오후 한시부터 종로서 법정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죄상은 태평양 「맥아더」 사령부포고 제二호(치안교관 연합군□□□) 위반이라고한다.

[6] 해방 후 신불출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인지 좌익에 가담하였다. 그는 시예에도 상당한 솜씨를 보였는데 <토지는 농민에게, 무대는 연극인에게>라는 문귀를 힘있는 필체로 써 걸기도 하였다. 언젠가 서울 중앙극장에서 만담을 할 때였다. 태극기의 태극 무늬 윗부분은 빨강이고 아랫부분은 파랑인데 결국 빨강이 파랑을 누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시도때도 없이 우익 정치를

12) 조선일보, 1946.6.15.

13) 조선일보, 1946.6.23.

비방하였다. 아마 그 무렵에 북측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회유한 모양이다. 그는 마침내 월북하였다. 북에서도 그는 만담을 한동안 계속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한 그의 삶은 전혀 알 수 없다.¹⁴⁾

[7] “월북자와 남북어부 등을 안심시키기 위해 신불출이 자주 동원돼 만담을 공연했어요. 그러다 신불출이 말을 잘못해 요덕수용소에 끌려왔고요. 그도 1976년쯤 요덕수용소 구읍지구에서 영양실조에 걸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¹⁵⁾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신불출은 국가 모독죄로 경찰서에 구금되었으며 좌익 성향으로 월북한다. 월북이후에는 북측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만담가로 활동을 벌인다. 북한에서 13년간 조선인민군 협주단 무용배우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온 김영순(67) 할머니¹⁶⁾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북한에서의 신불출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불출의 만담이 북한에서 선전의 도구와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었지만 신불출은 기존의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북한에서도 말을 잘못하여 정치범 수용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3. 흥미 표현

신불출의 여러 문예 활동 중에서 흥미와 관련시켜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단연코 만담이 될 것이다. 신불출의 만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었다. 신불출 만담에서 여러 대중이 공감할 수 있었던 흥미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작품을 통해 검토해 보자.

14) 고철봉, 앞책, 167면.

15) 조선일보, 2004.6.10.

16) 김 할머니는 그간 조용히 살아오다 북한 인권 운동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최근 사회 활동을 시작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살아가고자 한 분으로 광복 직후 활발한 활동을 한 신불출에 대해 증언하였다.

3.1. 상황적 흥미

앙리 베르그송¹⁷⁾은 상황적 웃음을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과 어떤 상황을 뒤집어 역할이 전도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동일한 상황의 반복과 예기치 못한 상황의 역전은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반복과 역전의 관점에서 신불출 만담의 흥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대화는 중매인(中媒人)과 딸을 가진 어머니의 대화이다. 이 대화에서 생기는 흥미를 발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객:** 이리 오너라 **婦:** 누구시냐고 **엇취라** **객:** 그 주인양반 계시냐고 **엇취라**…… **객:** 아주 훌륭한 신랑(新郎)감이 있습니다고 **엇취라**…… **婦:** …그런데 얼굴은 엇더트냐고 **엇취** 보아라 **객:** 좀 얼것습니다고 **엇취라** **婦:** 아이고, 망칙해라. 허고만은 얼굴 중에 하필 꿈보냐고 **엇취라** **객:** 아주 썩병은 아니라고 **엇취라**…… **婦:**…그런데 돈속을 얼마나 아시느냐고 **좀** **엇취** 보아라 **객:** 그래, 돈속을 얼마나 아시느냐고 **좀** **엇취** 보아라 **婦:** 무던이 안다고 **엇취라** **객:** 그럼 따님을 돈에다 팔어 잡수실 생각이냐고 **좀** **엇취** 보아라 **婦:** 그건 무슨 말씀이시냐고 **엇취라** **객:** 조선(朝鮮) 말씀이라고 **엇취라** **婦:** 폐일언(蔽一言)하고, 돈 업스면 실습니다고 **엇취라**……. **객:** 돈은 잇다가도 업고, 업다가도 잇는 것이지만, 남편을 한 번 잘못 맞타기만 하면 평생 신세를 망치는 것이니, 사람은 외양보다는 첫재 마음이 안이냐고 **엇취라** **婦:** 그럴 듯합니다라고 **엇취라**.¹⁸⁾

위 대화에서는 중매인과 부인이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이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어법을 사용하여 흥미 차원으로 발전시킨 유형이다. 이 대화에서 중매인과 어머니는 시종일관 대등하게 서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입담을 벌인다. 어머니는 딸의 남편감으로 이해심이 많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을 원한다. 성격, 외모, 경제력 모든 상황을 두루 갖춘 완벽한 사람을 구하고 있다. 중매인은 소개시켜 줄 사람이 이해심은 있지만 외모는 꿈보에 돈은 많지 않다는 것을 그대

17) 앙리 베르그송,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정연복 옮김, 세계사, 2001, 63-88면.

18) 최동현·김만수, 『엇취라 타령』, 앞의 책, 138-139면.

로 보여준다. 상황은 중매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매인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 부인이 돈이 많은 사윗감을 얻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한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남편을 잘못 얻으면 신세를 망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남편 될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다. 이 대화는 반복되는 중매인과 부인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대결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결국에 중매인은 부인으로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외모도 볼 품 없는 사윗감이지만 이해심이 많은 즉 성격이 좋은 사윗감이 괜찮겠다는 이해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이 과정에서 중매인과 부인은 직접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엇쨌라”라는 간접 대화법을 통하여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흥미를 더한다.

[9] 女: 여보, 그런데 참 오늘이 월급날이지 男: 그래 女: 저 男: 왜 그래, 그 리 길. 女: 난 어제밤에 깃분 꿈을 하나 꾸었세요. 꿈에 당신이 월급타거든 내 반지 하나 사다주마구 그리두군요. 男: 내가 인제 반지를 사다가 준다구 그랬 지. 그랬더니 당신이—아주 그 짜지 쓸데 없는 물건 사지 말구, 그 돈으로 철 겨운 당신 모자나 하나 사 쓰라구 그랬지 女: 뭐? 엇저구 엇제. 난 몰나, 난 몰 나, 난 몰나 男: 하하하하하¹⁹⁾

[9]에서 아내는 남편의 월급날 선물을 받고 싶은 생각에 꾀를 내어 어렵 게 간밤 꿈 이야기를 시작한다. 남편은 여지없이 아내의 소망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철지난 모자를 바꿀 생각을 역시 ‘꿈’으로 설명한다.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저버리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황을 순간에 역전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아내와 남편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꿈’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상대방에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 어법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바를 드러내지 않 음으로써 부부 사이의 언쟁을 피할 수 있게 만든다. 만일 이 부부의 대화에서 월급날 아침부터 아내가 남편에게 반지나 하나 사달라고 조르고, 남편은

19) 최봉현·김만수, 「월급날」, 앞의 책, 225-226면.

돈도 없는데 자신의 철지난 모자나 하나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다투었을 것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애교스럽게 ‘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제시한다. 이에 남편도 역시 ‘꿈’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 한다. 이것으로 남편과 부인은 모두 기분이 상하지 않고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였다. 비록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웃음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3.2. 언어적 흥미

이야기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맛을 가장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신불출은 언어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웃긴 이야기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서양 반절을 가지고 영어를 하렸다. 아, 조선 가가거겨가 조선 반절이라면 영어 에이 비이 씨가 서양 반절이 아니겠소? 아, 그래 알파베트를 콕 한꺼번에 내리 붙여 가지고서 감쪽같이 영어 연설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하니 에이 에이치 이 에프 에이치 아이 제이 케이 엘 엠 엔 오 피 큐 알 엑스 와이 제트 그런단 말야. 그래 나도 질 수가 없어 가가거겨를 가지고 한바탕 엉터리 연설을 하는데 가, 어딜 가, 우리가 다 갈 데는 많지. 가가거겨고교구규그기 가고 갈수록 거기 있으므로 고고한 일 구구한 일 나만을 통해 나나너노뇨뉴뉴느니 나니 너니 하고 밤낮 서로 논쟁들만 하면 결국 누가 나냐를 다다더더도도두 두드디라 하겠느냐. 다같이 서로 도와 나가면 다행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말이다. 라라러러로로류류리 난리가 난다고 놀자판으로 나가려 들면 절대 안 되는 말이요, 마바머머모모무무브미 말이란 뭐고 몸이란 뭇이기에 유심론인지 유물론인지 말이 많고 바바버벼보보부부브비 밤낮 밥만 벌어먹겠다고 부질없이 부지런만 떨고 있으니 사사서서소소수수스시 사람이란 실로 소소하게 스러져 버릴 게 아닐 텐데 아아어어오오우우으이 어이할 거냐, 이 엄청난 오류를. 어찌할 거냐 말이다. 자자저저조조주주즈지 자, 이래도 저래도 예대로 맞이할 게 아닐 테고 차차처처초초추추츄츠치 차차좋은.(이하 판독 불가)²⁰⁾

신불출의 「एं터리 연설」은 처음 부분에서는एं터리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부터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내어 웃음을 자아낸다. 동시에 밤낮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하여 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를 비판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을 내보인다. 연설을 한다고 하면서 문자의 나열에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연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एं터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एं터리라는 연설은 자음의 첫 글자 ‘가’로 시작되는 단어를 이어 하나의 구나 문장을 만들어 냈으로써 의미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가’부터 시작하여 ‘차’까지 이어지고 뒤의 부분은 판독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짐작하건대 어찌 하거나 말거나 이래도 저래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차차 좋은 세상이 도래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다 함께 박장대소하면서 웃는 ‘하하하하하’로 끝난다고 가정해도 억측이 아닐 것이다. 「एं터리 연설」은 그 자체 이야기가एं터리를 빙자하여 웃음을 유발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신불출은 음운의 반복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형식을 갖추고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할 연설의 격식을 깨뜨림으로써 신선한 웃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웃음은 정형화된 형식을 파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एं터리를 가장하여 만들어내는 진짜 연설이다. 그러므로 반어적인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11]소녀: 영감님 올해 몇이슈? 영감: 나? 그림자하고 둘이다. 소녀: 아니 연세가 얼마나 말이에요? 나이를 몇이나 잡수셨나, 이 말예요? 영감: 정월 초하룻날 한 그릇 먹고 여지껏 안 먹었단다. 소녀: 계시긴 어디 계슈? 영감: 나 지금 오케 레코드판 속에 들어 있다. 소녀: 아이, 참, 입담도 어지간하셔, 그런데 왜 그렇게 늙으셨어요? 영감: 하루 지날 때마다 헤져서 그렇단다. 소녀: 그런데 머리는 왜 그렇게 벗어졌수? 영감: 알뜰한 세상에 남의 걱정하다 이남박을 썰단다. 소녀: 그런데 사람들이 영감님더러 무릎박 대가리니, 사발 대가리니, 댄박 대가리니, 영등짝 대가리니, 호박 대가리니, 요강 대가리니, 그러던데요? 영감: 그건 다 요새 사람들이 만든 말이다. 원래 영어로는 데아드라 그리고 중

국말로로는 크더우, 일본말로로는 하게야다마, 조선말로로는 공산명월이란다. 소녀: 뭐? 공산명월? 그럼 화투판에 가면 돈을 잘 따시겠구려? 영감: 너 나이에 비해 아주 내던져졌구나. 소녀: 던지다니요? 영감: 버렸다는 얘기다. 그나지나 대가리 벗겨진 덕분에 너 큰애기하고 말을 하게 되었으니 한마디 더 들려줄 테니깐 들어보련? 소녀: 어서 하세요. 영감: 오냐, 방정맞은 여자 앞에서는 행여 조심해야 한다. 만일 잠을 자다가 다듬이돌로 잘못 알고 디립다 방망이질 해대면 (큰소리로 웃는다.) 소녀: (노래로) 영감님 대가리는 다듬이돌 대가리 방정맞은 여자 옆엔 못 잔다누나. 영감: 하하, 어디 그분이나? 해수욕을 갔다가 어부들이 문어로 잘못 알고. 소녀: (노래로) 영감님 대가리는 문어대가리 어부 있는 해수욕장 못 간다누나. 영감: 어디 또 그 뿐이야 말이지. 모자를 벗고 행여 운동장에는 못가. 만일 후도뿔로 잘못 알고. 소녀: (노래로) 영감님 대가리는 후도뿔 대가리 모자 벗고 운동장엔 못 간다누나. 영감: 하하, 어련애 옆에서는 자질 못한다. 만일 행여 애가 깨 요강인 줄 알고. 소녀: (노래로) 영감님 대가리는 요강 대가리 오줌 벉락 맞을까봐 걱정이래요²¹⁾.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익살맞은 대머리」는 대화 사이에 노래가 첨가되어 있다. 소녀와 영감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대머리 영감의 익살을 맛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체적인 모습을 희화화하게 되면 비난을 받지만 웃음의 마당에서는 주로 못난 것, 정형이 아닌 것들을 희화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이 있다. 이 대화는 감추고 싶어 하는 대머리의 난치한 사항들을 열거하여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소녀와 영감의 대화에서는 존칭이 무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야기의 시작부분에서 소녀가 영감의 나이를 물어보면서 “올해 몇이슈?”라고 하는 것은 영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듯 이 대화는 어른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엉뚱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소녀가 “올해 몇이슈?”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연세를 알고자 함이다. 이에 영감은 “그럼자하고 둘이다”라고 대답한다. 영감은 “몇 입니까?”라는 질문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아니라 “몇 명

21) 반세식, 『한국웃음사』, 백중당, 2004, 176-177면.

이서 함께 있느냐”로 해석하여 그림자와 둘이라는 대답을 이끌어 내었다. 뒤에 이어지는 대화도 이런 동문서답의 연속이다. 소녀가 “몇이나 잡수셨나”고 되묻자, 정월 초하루에 먹고 지금까지 안 먹은 것을 강조한다. 영감의 대답에서 이미 영감은 소녀가 나이를 묻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동음이의어 현상으로 누릴 수 있는 재미이다.

각 나라의 표기로 대머리를 표현한 것 역시 언어적 특징을 잘 살린 재미이다. 영어로 대머리를 ‘데어드라’라고 한 것은 크다는 대(大)자에 ‘—드라’를 붙여 영어식 어감을 살렸다. ‘크더우’는 ‘크다’는 것에 ‘—더우’를 붙여 중국어의 어감을 살리고자 한 부분이고 ‘하계야다마’는 일본어의 벗겨진 머리(하계야타마)를 그대로 표기했다. 대머리에 대한 표현에서 머리가 ‘크다’라는 특징을 살린 것은 머리카락이 없어서 머리가 더욱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언급은 다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대머리의 신체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조선말로 대머리를 ‘공산명월’이라고 한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다. 빈산의 달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와 밝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대머리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이것으로 대화는 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공산명월은 화투짝을 연상시키고 결국 이것으로 소녀는 영감에게 화투판에서 돈을 잘 따겠다고 말하면서 소녀답지 못한 인상을 심어준다. 또한 대머리의 형상을 가지고 다듬이돌, 문어, 공, 요강에 견주어 웃음을 만들어낸다.

신불출 만담의 흥미는 반복되는 상황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역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음운의 경쾌한 리듬감, 동음이의어에서 발생하는 기발한 질문과 대답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한층 더 돋보인다.

4. 주제 의식

신불출은 다양한 문예활동을 통하여 대중에게 웃음을 전파하였다. 웃음은 개인적인 흥미로 유발되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의미망

을 형성하고 있다. 웃음의 공감대라는 것은 사회적 유대관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신불출의 문예활동에 담긴 주제의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4.1. 세대 비판

신불출은 삼천가극단, 조선연극사, 내외극장 등의 극단에 많은 대본을 제공해 주었다.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양산도」(1933.2)와 「사생결단」(1935.2)이 있다. 「양산도」는 양노인의 아들 梁山이 공장 동맹파업을 주도하였다가 동지들의 배신으로 패배를 맛보는 내용이다. 양산은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서 배를 불리는 자본가의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경멸한다. 「양산도」는 1920년대 프롤레타리아 희곡의 영향이 남아있는 작품으로 계급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12] 張: 여보게 양산이 큰일났네 山: 뭐냐 張: 그래 이런 분하고 절통할태가 어데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자네같이 일하든 동반들은 이제 자네를 배반하고 말었네. 그 놈들의 돈으로 해서 그만 변절을 하였다네 그리고 그 놈들은 주인과 한 편이 되어서 레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되었다네. 山: 맞음내 저들은 나를 배반하였구나. 그리고 돈 때문에 변절을 하였구나. 아아 믿을 놈이 없구나 옛제서 이 동리에는 신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사람이 없느냐 아아信義 信義 信義 가 그렇구나. 신의를 직히는 동무가 그렇구나..... 山: (칼을 갈면서) 돈을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들의게 만일 돈이 잇다기로 그 돈의 활용이 잘 될 일리가 없을 것이다. 신의를 직힐 줄 모르는 때문이다. 모도가 무지한 때문이다. 우리의 원수는 무엇보다도 무지이다. 몇 천년을 가도 몇 만년을 가도 이 무지한 껍텁이가 벗겨지지 안는 날에는 세상의 슬픈 눈물은 언제고 말으지 안을 것이다.²²⁾

신불출은 양산을 통하여 돈으로 노동자를 매수하는 자본가의 모습을 보

22) 『삼천리』, 1933.2.

여준다. 양산은 열심히 일하지만 험벗고 굶주리는 노동자에 비해, 노동도 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자본가에 환멸을 느끼고 동맹파업을 결의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맹을 결의했던 동지들은 하나둘씩 생계를 위해 빠져나가게 되고 양산은 그 과정에서 신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동지를 그리워한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보다 경제적인 궁핍을 견디지 못하는 동지들은 자본가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동지들이 빠져나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양산은 신의를 좌절시키는 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신불출은 돈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돈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을 경우,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신의를 지킬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동맹을 깨뜨린 동지의 원수는 돈이 아니라 무지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신불출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의 무지몽매한 대중들이다. 그래서 무지가 깨어지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세상의 슬픔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신불출이 주로 활동했던 만담에 대한 견해이다. 신불출은 초기에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극작을 하였지만 세상에는 만담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아마도 신불출이 연극배우로 공연한 것이 몇 편에 지나지 않고 만담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더욱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당대 최고의 만담가로 인기를 누린 신불출이 추구한 만담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그의 만담론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13] 만담은 반드시 재미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로되 그렇다고 신통기 발한 미사묘어를 나열하는 것뿐으로서 만담이 되는 것이 아니니 과연 현대인의 가슴을 찌를 만한 칼같은 박력이 있는 그 어떤 진실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만담은 원래 조선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 재답이란 것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이 만담과는 아주 비견도 못할 만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외다. 이 재답이란 것은 아마 동경에 있는 만세(萬歲)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다만 웃음 분위로 공허한 내용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선서 시작된 만담은 대십사랑(大辻司郎)류의 만담과는 아주 판관의 것이라고도 할 만치 두드러지게 달리 된 것이니 그것은 그들의 입맛과 비위가 우리와는 사뭇 다른 때문이었습니다.

왕왕히 야담과 만담을 구별 못하는 이를 보는데 야담과 만담의 다른 점은 첫째 야담은 주로 야사를 중심으로 한 고담(古談)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만담은 주로 현대를 중심으로 한 실담(實談)을 내용으로 하는 점일 것입니다.²³⁾

신불출의 주장은 세 가지 면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만담은 현대인의 가슴을 찌를 만한 칼 같은 박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재담이 재치 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되어 풍자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한낱 재미에 국한되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과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재담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만담은 조선에 원래 없던 것으로 재담과 다른 종류임을 설명한다. 이것은 재담이 지닌 본래적 속성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일본의 대십사랑과도 다른 것임을 밝힌다. 이것은 일정 정도 만담의 시작이 조선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일본의 대십사랑류와는 판이하게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신불출이 말하고자 하는 만담은 기존의 재담에서 발전된 형태로 현대인의 가슴을 치는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신불출이 펼치는 만담의 세계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시대비판의식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불출의 만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당대의 신문기사에서 사용되던 용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4] 신불출(申不出)씨의 인생세탁(人生洗濯)이라는 만담은 인생을 세탁한다. 깨끗하게만 빨지 말고 아름답게 살자. 인생세탁은 눈물의 비누보다 우습기의 비누로 빨아야만 재가 흰신더 잘 빠진다는 특이의 비웃어야²⁴⁾

[14—1] 신정언(申鼎言)씨의 기인기제(奇人奇題) 새삼스럽게 소개될 것도 업는 만큼 신정언씨의 야담은 언제나 그의 기품과 학자(學者)적인 태도가 높히 평가 되는 바이요²⁵⁾.

23) 「만담과 웅변」, 『삼천리』, 1935.6.

24) 매일신보, 1940.8.21.

25) 위 기사.

위의 이야기꾼들의 공연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에서 특이할 점은 나름대로 만담, 야담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정언은 신불출과 함께 만담을 공연했던 사람인데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다. 신정언의 이야기를 ‘야담’이라고 한 것은 그가 역사적인 내용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내었기 때문이다. 임석재²⁶⁾는 재담을 ‘재치 있는 말과 재미나게 꾸며진 연회용 사설’로 규정 짓고 있다. 사진실²⁷⁾은 배우의 골계(滑稽) 즉 우스운 이야기를 칭함에 있어 논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배우 또는 창우의 예능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최동현·김만수²⁸⁾는 만담을 넓은 의미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우스운 이야기로 정의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1인 재담’으로 보고 있다. 위의 논의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재담이나 만담이라는 용어는 ‘당시의 시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배우의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다. 각 시대마다 배우의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를 표현하는 용어가 달랐기 때문이다. ‘만담’은 신불출이 만담론에서 펼친 논의처럼 당시 일본의 영향을 일정정도 받아들여 ‘조선적인 것’으로 만들어낸 용어로 보인다.²⁹⁾ 재담이나 만담은 서로 같은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고 혹은 서로 다른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가 각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불출의 만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만담’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서 현대인에게 비판의식을 심어준다. 신불출 이전에 이미 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신불출이 논의한 만담론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신불출은 ‘인생세탁’이라는 만담을 통해서 인생을 세탁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기 위해서는 비누가 필요하다. 신불출은 인생을 세탁에 비유하여 눈물보다는 웃음이라는 비누가 인생을 더 잘 세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단편적인 기사 내용을 통해서도 신불출 만담은 ‘인생세탁’에서처럼 웃음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26) 임석재, 『한국 민속 대관』 6—구비전승, 기타,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2.

27)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 2002, 488-489면.

28) 최동현·김만수, 앞책, 22-24면.

29) 신불출이 처음으로 만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의 만담론이 독특하고 뚜렷한 사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므로 신불출은 만담으로 대중에게 웃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이치를 함께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다.

[15] 사람들은 거짓말만 하고 사는 것같단 말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정말이야? 그 정말이야? 하고 반문하니 얼마나 서로 거짓말만 하고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는 것이지. 과연 이게 다 말씀 아닌 말씀이지. 걸핏하면 욱 잘하는 사람, 죽어도 더럽게 죽으라거나, 염병을 앓아도 아주 흉칙스럽게 앓다 죽으라는 등, 부모를 걸어서 하는 욱이나 철없는 애들을 걸어서 욱할 때도 망할 놈이니, 망할 년이니, 망할 자식이니, 심한 경우에는 친한 친구일수록 농지꺼리나 시종 욱으로 이어져야 웃음이 터져 나오고 속이 풀리는 듯하니 생각할수록 딱한 사정이고 말씀 아닌 말씀이죠. 또 길에 가다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으레 하는 말이 어디 가냐? 어디 가요? 하니 대답을 들을 수 없는 말을 왜 묻소? 그리고 그뿐입니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응, 어디 좀 가네, 그게 무슨 말 대답이요? 말이 모두 현실에 뿌리 박은 생활성 언어가 못되고 공중에서 쌓은 개연성 언어입니다요. 그게 다 말씀 아닌 말씀이지요. 지금 조선에서 유행중인 노래들이 대개가 연애타령인 점은 기막힌 일이지만 노래마다 그저 아니 놀고는 못배기겠다고 하니 이 바쁜 세상에 놀기는 왜 논단 말이요? 한심한 노릇이외다. 그 역시 말씀 아닌 말씀이지요. (중간 판독 불능) 말씀 아닌 말씀을 엮어 내라면 이 레코트판이 백 장, 천 장이라도 뇌까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 다 집어 치우고라도 말씀 아닌 말씀 중에도 말씀 아닌 말씀이 하나 있어. 이걸 말 끝마다 죽겠네, 죽겠네, 하는 거야, 그 왜 죽는단 말야 대체. 아이고, 팔이 아파 죽겠다.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귀가 아파 죽겠다, 배가 아파 죽겠다, 더위 죽겠다, 추위 죽겠다, 심심해 죽겠네, 심심한데 왜 죽느냐 말요, 아주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재밌어 죽겠네, 맛있어 죽겠네, 하면서 잘도 웃고, 잘도 먹는 거란 말이야, 이런 말씀 아닌 말씀이 없어지는 날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이하 판독 불능)³⁰⁾

30) 반재식, 앞의 책, 69—70면, 재인용.

신불출의 「말씀 아닌 말씀」은 관객에게 폭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지만, 결코 신나게 배꼽잡고 웃을 수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불출은 「말씀 아닌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네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나서 하는 말이, “말씀 아닌 말씀을 엮어 내라면 이 레코트 판이 백 장, 천 장이라도 뇌까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 (…).”으로 상황을 종료하고 가장 말씀 아닌 말씀 상황으로 죽겠다는 것을 지적한다. 결국, 이 레코트판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말씀 아닌 말씀이 현실에 가득 차 진위를 따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아파 죽겠다”고 하는 말이 뒤로 가면서 재밌어서, 맛있어서 죽겠다는 것으로 바뀌면서 상황은 역전된다. 신불출은 사람들이 “~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잘만 웃고 잘만 먹는 것을 보면서 이 말을 말씀 아닌 말씀의 극치로 여긴다. 이것은 극치의 역설적인 상황으로 관객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고 간다. 왜냐하면 ‘죽겠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강하게 표현하여 죽을 것 같다는 것이지 정말로 죽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물음으로써 관객은 웃을 수 있지만 현실에 가득 찬 「말씀 아닌 말씀」의 상황적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신불출의 비판정신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의 또 다른 비평에서이다. 「<劇藝術協會>에 보내는 公開狀」에서는 현시대의 연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6] 흥행극단은 무대 실제의 경험은 있어도 사회 의식을 뚜렷이 인식지 못했던 연고로 해서 좋은 연극을 못하는 채로 있던 것이요, 신극단체는 시대 이념은 힘있게 파악했으나 무대 실제에 경험이 없었던 소이로 해서 역시 좋은 연극을 못하는 채로 있던 것이다. ……진정한 연극적 활동은 먼저 대중적 기초 위에다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싶다는 것이다. 연극에는 예술적 일면도 있지만 사상적 일면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요, 흥행적 일면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 삼면 삼각형은 연극의 전면적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내가 말하는 흥행이란 것은 무모한 향락적인 것들의 의미함이 아니요, 지조 있는 오락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인 동시에 수지에 대

한 상업화를 말함이 아니라 경제의 기업화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극연예의 주문을 몇 가지 말하려 한다. 극연예는 다시 연극 이전의 지점으로 돌아가 달라라는 것이다. 극연예는 시방 연극을 함에 있어서 진실로 이론적 연구에서 실제적 연구에로 추상적 이론 행동에서 구체적 실제 행동에로란 말이니 물론 이 실제란 말은 공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 시대에서 실행 시대로 넘어 가는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그 과도기적 수속으로의 연극적 기본 조건인 조선적인 극작법과 조선적인 연출법(역양법 표정법)과 조선적인 장치법 등등을 창안하라는 말이다.³¹⁾

1930년대 연극계를 보면 통속성과 상업성이 강한 흥행극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신극 단체들은 연극의 예술성과 계몽성을 앞세웠다. 일반 대중은 예술성을 위주로 하는 신극 단체의 공연보다는 볼거리가 있는 흥행극단의 연극을 선호하였다. 신불출은 신극 단체가 흥행극단의 이득 위주로 대중에 영합하는 성향을 비판한 것에 대해 수긍하였다. 한편, 신극 단체들이 흥행극단에서 이루어낸 대중의 인기를 무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신극 단체들도 흥행극단이 지니고 있는 대중성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흥행극단은 많은 공연을 통하여 풍부한 무대 경험을 쌓았지만 사회의식을 담지 못하였고 신극 단체는 시대의 이념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었지만 무대 경험이 부족하였다. 신불출은 흥행극단과 신극 단체가 연극의 예술과 대중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하는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극 단체들이 흥행극단의 공연이 지닌 대중성을 겸허하게 배울 것을 주장한다. 신불출의 이러한 주장은 진정한 연극 활동이 대중적 기초 위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덧붙여 바람직한 연극은 예술, 사상, 흥행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삼면 삼각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당대의 연극이 새로운 사상의 전달 매체로서 계몽성만을 추구하거나 일시의 재미만을 추구하여 흥행으로만 치달는 풍조를 비판하고 예술적 가치와 대중의 기호에도 영합하는 훌륭한 공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소망을 보여준다.

31) 『삼천리』, 1937.1.

그러나 연극 공연에서 예술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신불출은 예술성과 흥행성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조선적인 극작법과 조선적인 연출법(역양법 표정법)과 조선적인 장치법을 창안’할 것을 제시한다. 이것은 신불출이 지니고 있는 ‘만담’에 대한 신념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신불출은 시종일관 그가 추구하는 만담이 기존에 한국 전통 재담에서 발전된 형태로 조선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낸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신불출은 여러 문예 활동 속에서 일제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적인 것’을 살리고자 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신불출의 견해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17] ‘남의 것을 배우는 것은 내것을 만들기 위해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혜택 받지 못한 문화의 유산 속에서 앙상한 자기 그림자를 발견할 때마다 늘 외국의 선진문화를 적당히 모방하여, 또한 정당한 진리를 추종하여 자기 문화의 영역을 광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자기 문화의 창조적 임무가 결코 모방과 추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가장 참된 비판의 칼로서 요리된 영양제가 아니어서는 안 될 것이니 요즈막 해외문학을 연구하는 이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비판적 모방에서 가져오는 서투른 솜씨가 마침내 그 민중으로 하여금 소화불량증에 신음케 하는 죄과가 하나 둘이 아닌 점으로 보아 그들의 반성을 구하는 것이니 요컨대 실제 조선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비판적 섭취로서의 재출발이 있기를 교망(翹望)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³²⁾

[17]에서 신불출은 외국의 선진문화를 모방할 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의 칼로 요리할 것을 촉구한다. 신극 단체들은 대체로 지식인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사상을 연극에 담았기 때문에 연극이 높은 예술성과 사상으로 무장되었다. 반면에 흥행극단은 일본의 영향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대중의 호응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상업성으로만 기울어졌다. 신극

32) 『삼천리』, 1935.6.

단체나 흥행 극단 어느 한쪽도 해외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결과이다. 당시 연극계에서 이러한 풍토가 만연하자, 신불출은 연극계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공연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4.2. 대중 교화

대중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종교적, 도덕적, 교육적, 예술적인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연극이나 이야기를 통한 대중 교화는 예술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작품의 예술성과 함께 교화의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흥미로운 연극이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으므로 대중 교화에 예술적인 방법은 큰 효과를 불러온다. 앞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신불출은 현실에 대한 뚜렷한 의식으로 무장된 사람이면서 익살스러운 이야기꾼이었다. 그가 풀어 낸 이야기는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에서부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까지 이야기의 편폭이 매우 넓다. 신불출의 창작물과 공연을 통하여 그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자.

[18]몇 해 전까지도 어느 친구는 ‘조선은 이야기가 없는 나라’다.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민족이 있고 역사가 있는 이상 이야기가 왜 없으리요마는 그 친구의 말은 막연하나마 ‘이야기 그것이 예술화되고 음악화되어 대중과 생활을 같이 못한다’고 하여서 그러한 비분의 말을 던진 듯 싶다.(중략) 여기에 현철씨의 삼담이 등장하였으니 왕가담(曰歌談), 왕연담(曰演談), 왕산담(曰散談), 이리하여 삼담이다.(중략) 물론 그의 삼담은 지금 완성하려는 도중에 있으므로 그것이 어느 형식으로 완성되며 또 완성 이후의 그것이 예술적 작품으로 얼마만한 가치로 평가될 것이며 민중 생활에 얼마만한 반향이 있겠느냐는 것은 아직 미지수거니와 우선 마이크를 통하여 나온 그의 화술은 재래 사랑방식 이야기의 산만적인 것보다는 집단적이고 사람에게 느낌을 주는 정도로 말하더라도 재래 이야기의 미온적인 것보다는 훨씬 역학적이다. 그는 확실히 조선 야담계에 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었으며 한 개의 에포크를 그었다.³³⁾

[18—1] 일찍이 조선의 연극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던 신불출씨는 그후 극계를 떠나 조선에서 첫 시연 만담의 실마리를 풀어 놓게 되었다. (중략) 연제는 추풍감별곡이라는 사화(史話)와 일편단심이라는 고려 말년에 충사한 정포은 선생의 애끓는 충의를 여실히 말하는 사적(史的)이야기와 현대 가정 생활에 현실되어 있는 부부간의 회로애락의 실마리를 재미있게 잘 풀어내어 일반 청중으로 하여금 가정 사회에 대한 자극을 주어 청신제가 되게 할 모양이다.³⁴⁾

[18]에서 신불출은 이야기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강조하며 현철이 새롭게 고안해 낸 ‘삼담’이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주목했다. 또한 현철의 ‘삼담’은 라디오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재래의 사랑방식의 오밀조밀하고 정겨운 맛보다는 집단적이고 역학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랑방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감할 수 없었다. 이야기가 라디오를 통해 전달되면서 다수의 청중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신불출은 현철의 ‘삼담’이 라디오를 통해서 ‘대중’에게 넓게 퍼지게 된 것을 당시 야담계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라디오 방송이 1927년 2월 처음 개국했을 때는 한·일 국어 혼합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933년 4월 개별 채널을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 이중언어방송을 실시하였다. 이중채널이 생기게 되자, 하루 8시간이던 한국어 방송이 15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방송국에서도 국악,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1930년대 후반 청취자가 차츰 증가하면서 청취자의 대부분은 인텔리층이 아닌 일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드라마와 유행가 등의 연예 프로그램이었다. 이 시기에는 라디오를 통한 음악의 소개와 보급으로 레코드 판매가 촉진되면서 라디오의 대중적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평가되기 시작하였다.³⁵⁾

위의 라디오 방송 시기의 사회적 풍속의 변화는 신불출과 현철이 유행기

33) 월간 『중앙』, 1936. 1.(반재식, 『만담 백년사』, 백중당, 2000. 67-69면, 재인용.)

34) 조선일보, 1934. 1. 25. (반재식, 위책, 75면, 재인용.)

35) 최현철·한진만,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적 연구—편성 흐름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2004. 38-60면.

음반과 라디오를 통하여 폭넓은 대중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접근하고 있었지만 대중과 호응하여 대중에게 새로운 의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현철의 민중극 논의를 통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 현철은 1913년 일본의 시마무라호오게츠(島村抱月)의 예술좌 부속의 연극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귀국하여 문필 활동과 함께 연극 운동에 관여하였다. 현철은 신극을 토착화시키기 위한 선구자적 기질과 함께 민중극에 대한 필요성도 가지고 있었다.

[19] 민중극이라고 하는 말이 총괄적임을 얼핏 보기에는甚히 막연한 듯하나 대체로 三種에 분류할 수가 있다. 一은 민중을 제재로 한 극, 二는 민중의 공유물이 되는 극, 三은 民衆敎化의 극이다. 第一의 경우는 소위 근대에 민중으로의 극이니 민중적 요소를 포함한 극이다. 하우프트만, 고투키이, 입센 등의 諸作品과 가티 노동자, 천민, 농민 등의 제재로 작극한 것임으로 이러한 제재상 민중극은 이 문제밖김으로 이제는 설명할 것이 업고 그 다음 第二는 민중이 자작한 것이나 그러치 아니하면 민중이 공유한 극이요 第三은 민중을 위하는 교화관계의 극이니 目的動機卽劇을 일으키는 것이나 또는 민중에게 □하는 이유상으로 보는 민중극이다.³⁶⁾

[19-1] (중략) 어찌면 연극이 우리 민중에게 생활의식을 명확케 하며 어찌면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게 할까 하는 그것이 필자로서는 연극에서 바라는 유일의 소원이다.³⁷⁾

현철이 제시한 민중극은 민중을 제재로 민중과 공유하고 민중을 교화시키는 것이다. 연극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현철의 관심은 연극운동을 예술운동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으로 보아줄 것을 당부한다. 이것은 연극이 민중의 실생활을 반영하기 때문에 민중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안에서 민중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극

36) 현철, 「문화사업의 급선무로 민중극을 제창하노라」, 『개벽』, 1921.4.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단국대 출판부, 2000(증보판), 646-647면 재인용.)

37) 현철, 「극계로 본 우리의 민족운동」, 『동광』, 1927.1. (유민영, 앞책, 642면 재인용.)

은 예술성과 함께 민중을 계몽시키는 사회 운동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예술을 통한 대중 교화는 연극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도 구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불출의 문예활동을 중심으로 대중 교화의 성격을 찾아보고자 한다.

신불출의 「사생결단」(35.2)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왕은 어지러운 나라의 안위를 살피지 못하고 측근의 신하 승(崧)은 왕에게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압박한다. 왕의 애첩인 상화(翔華)는 승과 한패가 되어 왕을 독살할 계략을 세운다. 이때, 아내 상화를 찾아다니는 남편 마열(馬烈)이 등장하자, 마열의 아내인 상화는 왕에게 마열을 죽일 것을 부탁한다. 그런데 왕은 이전의 남편인 마열을 버리는 상화의 행동을 보고 환멸을 느껴 상화를 죽이고 마열을 신하로 삼는다.

[20]王: 나는 지금 세 가지 生光나는 일을 하였노라. 첫째로는 너이 억울한 撤天之恨을 풀었스니 生光의 하나이요. 그러한 毒性的의 계집이 나를 永遠히 받드려준들 무어서 내게 탐탁할 것이냐. 국가의 재앙을 방지함이니 다시업는 生光이었스려니와 更生에 빛이 없든 이 칼이 이렇듯 통쾌한 해결을 지었스니 문득 세 가지 生光이 아니면 뭐냐. 崧: 자—어서 상하인심이 흐르는 물같이 기우러졌스니 어서 빨리 禪位를 하오! 王: 오—이제야 이 나라에 마지막이 왔구나. 자—이 궁중 안에는 나를 받드려서 어지러운 국가를 다시 잡을 신하가 없느냐. 馬: 상감이여 염려를 부리시옵소서 아즉까지는 일개 계집을 차즈라 단이든 나약한 書生서이엿습시다만은 국가의 위급을 구하는 것은 장부의 떳떳한 일이 올시다. 王: 오냐 그러면 모든 것은 위탁한다. 馬: 자—이 천하에 용납지 못할 亂臣賊子의 무리들 아 塗炭에든 萬民蒼生을 어데다두고 私腹을 채우기에 급급하단 말이나 자—각오해라 남아의 구든 맹세가 헛되지 아니하리니 빛나는 사생결단을 보아라!³⁸⁾

「사생결단」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왕에게 왕위를 사양하라고 권하고 매관매직을 일삼는 신하들만 가득한 궁궐을 비유적

38) 『삼천리』, 1935.2.

으로 묘사하고 있다. 왕은 어려운 나라의 현실 앞에서 시종일관 신의와 의리를 강조하고 있다. 「사생결단」에서 신불출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일제에 아부하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 국권을 회복하는 길을 그림으로써 「사생결단」을 보는 관객에게 신의를 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극을 통한 교화는 대중에게 교화 내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관객은 연극을 보고나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만 그 교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비판 정신에서 살펴본 <말씀 아닌 말씀>과 유사한 만담인 <언어 아닌 언어>에는 언어와 실생활에 대한 비판 정신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잘못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도 보여준다.

[21]말이란 거시 엇더케도 그 나라 살님사리에다가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보아서 중국 사람들의 말말 끝에는 「만만디」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아시다싶이 「만만디」란 천천이해도 조탄뜻인즉 그 「만만디」란 말을 너무 많이 일상통용하는 빌미로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게으르게 만드러 오늘날 그 국가의 발전이 그러케로 「만만디」가 되어가지나 안나하는 神經質적인 解稱도 아니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구 일본내지 사람들의 말말 가운데는 언제나 「혼또니」란 말을 잘들합니다. 그 「혼또란 말은 참이란 말이요. 정말이란 말이니 현실적이란 뜻이요. 과학적이란 뜻입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갓치 미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없었는데 넷날부터 조선은 지리적으로봐서 古支那에서부터 흘러진 「양명학」과 「주자학」을 조선이 받아들려다가 「주자학」은 우리 것을 삼고 「양명학」은 일본내지로 보낸 것으로 때마침 미신에 침윤되어 헤어나갈 길을 찾아못하는 민중으로 하여금 엇더케하면 새로운 광명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을까하고 근심하고 잇든 여러 언어학자들이 조선서 중계해준 「양명학」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깨다름 밑에서 비저낸 생각이 되되어 「혼또니」란 말을 그 민중 속에 다가 뿌려주워서 미신타파의 수단용어으로써 쓰게 만드러주엇든 것이란 말로 잇습니다. 그래 그런지 전통양을 제도하는 일본의 오늘을 가져 온 것이나 앓인가고도 생각할 수 잇습니다.³⁹⁾

「언어 아닌 언어」와 「말씀 아닌 말씀」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 신불출은 우리나라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스운 이야기나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사교적인 언어 행위를 이야기로 엮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국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국어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이 정신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불출의 생각은 우리의 언어생활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내용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언어 아닌 언어」에서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만만되’,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혼또니’를 예로 들면서 이들의 언어가 국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언어생활에서는 ‘죽겠다’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죽겠다’는 표현은 다른 나라의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견주어 볼 때, 한국의 경우에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를 통하여 민족의 사상을 바로잡고 그것으로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은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만담은 단순히 시대를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유용한 생활의 지침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신불출의 문예활동을 검토하였다. 신불출은 초기에 <聚星座>에 들어가 배우로 활동하였고 <門外劇團>을 만들어 연극계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희곡 「양산도」(1933.2)와 「사생결단」(1935.2)을 통하여 각박한 현실에 ‘信義’를 저버리는 풍토를 비판하였다. 「만담과 웅변」(1935.6), 「<극예술협회>에 보내는 공개장」(1937.1)에서는 만담과 연극에 대한 포부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신불출은 만담가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는 신불출이 연극배우로 활동하거나 희곡

39) 『삼천리』, 1935.11.

창작을 한 것보다 만담으로 대중의 인기를 받았기 때문이다.

신불출의 만담은 반복되는 상황과 예기치 못한 역전으로 통쾌한 웃음을 선사하였다. 동음이의어의 특징을 살리고 예기치 못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대화법, ‘옛쨌라’와 ‘꿈’을 이용한 간접 화법 등으로 재미를 한층 더 했다. 이러한 흥미로운 만담은 대중에게 웃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대중의 무지를 일깨우는 데 일조를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신불출이 만들어낸 창작과 공연에서는 웃음과 풍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으로 일체의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현실비판사상으로 무장된 신불출은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초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불출은 북한에서도 자유분방한 비판 정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정치범으로 수용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자료는 신불출의 문예활동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폭넓은 신불출의 이야기 세계를 다 다루지 못하고 단편적인 궤적을 좇아 그의 사상과 작품 세계의 일면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한 개인이 이야기를 통하여 시대상황을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누리는 관객이나 독자가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향을 받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우스운 이야기에서 유발되는 웃음은 한 개인의 웃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느끼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불출의 웃음 세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매일신보』 .

『조선일보』 .

『삼천리』 .

고설봉, 『빙하시대의 연극마당 배우세상』, 이가책, 1996.

반재식, 『만담 백년사』, 백중당, 2000.

_____, 『한국웃음사』, 백중당, 2004.

사진실, 「배우의 전통과 재담의 전승—박춘재의 재담을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10, 한국고음반연구회, 2000.

_____,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 2002.

앙리 베르그송,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정연복 옮김, 세계사, 2001.

임석재, 『한국 민속 대관』 6—구비전승, 기타,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2.

최동현, 김만수, 『일제강점기 유성기 음반속의 대중희극』, 태학사, 1997.

최현철·한진만 지음,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적 연구—편성 흐름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2004.

<부록>

다음은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신불출에 관한 공연 기사이다.

번호	기사날짜	내 용
1	1931.06.02	研劇舍 來演. 昨一日부터 조선극장에서 興行, 同劇團員 姜弘植 申不出等 本社來 訪
2	1931.07.30	復活된 聚星座. 金小浪氏와 재휴하야 八月中에 혁신흥행할터, 주요인물은 李元在 李鍾哲 金景希 成光顯 宋海天 申不出
3	1931.09.09	十日부터 「新舞臺」 公演. 단성사에서 申不出一行 出演
4	1932.12.13	十六日밤부터 門外劇團이朝劇서 公演. 團員 申不出 金小浪 成光顯 李元在 羅品心 尹白丹 李貞姬外 數名
5	1933.07.30	女優漫談. 申不出(寫)女 高龍女 姜石燕 金素暎 金仙草 申銀鳳 全玉 李貴女 馬豪 政 池崔順 金鮮英
6	1933.12.17 ~12.21	本社後援 慈善演藝大會 出演者の 全貌 來二十三·四 兩日公會堂서 오케레코드 人 總動員(寫)崔虎永 徐祥錫 羅品心 申一仙 李蘭英 申不出 성광현 임방울 문호일
7	1934.01.25	仁川の 初試演 新春漫談의 밤. 本社仁川支局後援으로 申不出氏가, 申一仙 李蘭影 尹白丹等の 독창도 있을터
8	1934.02.15	漫談大會 開催. 本報支局主權로 來十九日부터 申不出氏가 演士로, 申一仙 尹白丹等도 出演
9	1934.02.26	本報大田支局에서 漫談大會 開催. 陰十六·七 兩日間 申不出 尹白丹 申一仙等 出演
10	1934.03.08	漫談大會 盛況 去五日 申不出氏가 群山中
11	1934.03.14	漫談大會 盛況 申不出一行 出演의 水原支局後援으로 去十一일에
12	1934.03.15	西部讀者慰安의 漫談大會 盛況 本報支局主權로 去十三日 부터 申不出一行이(寫) 當夜의 盛況
13	1934.04.22	本報讀者慰安 漫談大會 開催. 本報江華支局主權로 申不出 申一仙等を 초청하야來五月十五日 以內에
14	1934.05.18	本報廣州支局主權의 申不出 漫談 大會. 來十九일에
15	1934.05.25	廣州漫談大會 盛況 去十九日 申不出氏가 演士로
16	1934.06.20	本報讀者慰安 漫談大會 開催. 本報海州支局主權로 申不出 을 초청하야 來二十一日에, 申一仙도 出演

17	1934.07.11	申不出 漫談大會. 本報兼二浦支局後援下에 來十二日로 延期
18	1934.07.12	平壤漫談大會 盛況 本報支局主催로 申不出氏를 청하야 去九日부터 金千代座에서(寫)만담대회장
19	1934.08.09	水害救濟音樂會. 오케社主崔 本社後援으로 來十一日 長谷川町公會堂에서 李有善 高福壽 張明浩 李蘭影 江南香 申不出等 歌手 漫談家 總出
20	1934.12.18	十七日부터 研劇舍公演. 李雲芳 申不出 朴英鎬等の 作品을 朝鮮劇場에서, 卞基鍾 黃澈 李鍾哲 王平 池崔順 朴齊行等 出演
21	1935.01.28	本社平壤支局主催 新春漫談大會. 申不出氏 來平으로 今二十八日 백선행기념관에서
22	1935.03.01	公州에서 新春音樂大會. 청년상회에서 本報支局後援으로 경성오케레코드건축 예 술가 전원을 초청하야 來月九·十日에, 李有善 金海松 申不出 申一仙 李蘭影 江南香 羅品心 金小君 林芳尉 文湖月 高福壽等 諸氏
23	1935.03.30	레코드界의 名手들 모아 오케實現의 밤. 來月五·六 兩日間 장곡전정公會堂서, 李有善 崔虎永 高福壽 李蘭影 金蓮月 江南香 金海松 金小君 申不出 羅品心等 諸氏 出演(寫)오케관 현악단
24	1935.04.06	今五·六 兩日에 열릴 오케 「實演의 밤」. 本社主催로 장곡 전정공회당에서, 李有善 江南香 高福壽 李蘭影 金蓮月 申不出 羅品心 金海松 文湖月 金小君等 出演
25	1935.08.11	本社讀者慰安 漫談大會 開催. 裡里支局에서 申不出氏를 청하야 來十六日에
26	1935.08.13	盛況을 豫期하는 讀者慰安漫談. 本報裡里支局에서 申不出氏를 청하야 來十六日에
27	1935.08.21	本報裡里支局主催 漫談大會. 去十六日 申不出氏에 의해(寫)漫談會場
28	1936.01.26	대머리百萬風. 申不出년센스 盛文堂書店發行
29	1937.01.29	本報大田支局主催 漫談大會. 申不出을 초빙하야 今二十九日에
30	1937.03.13	本報扶安支局主催 漫談大會 開催. 申不出을 초빙하야 來十六日에
31	1937.08.25	申不出 漫談大會. 今二十五日 長湖院에서
32	1937.10.12	申不出氏 漫談大會. 本報鐵原支局主催로 來十六日부터

33	1937.10.26	漫談大會 開催. 국민협회 평양지부주최로 申不出 韓才景 申一仙 羅品心等을 초청 來二十七日부터 백선행기념관에서
34	1937.12.09	申不出 漫談大會에 六日 聽衆의 大盛況. 開城송악학원에서
35	1938.02.08	遠征費 調達코저 野談漫談大會. 斯界의 巨星四氏 庾秋岡 黃材景 申不出 申鼎言出演, 平壤蹴球團主催로 今八·九日 府民館에서
36	1938.03.27	秀英學院을 爲하야 野談大會 開催. 學院維持費를 辨出코저 斯界名星 申鼎言 申不出 庾秋岡 三氏 出演하야 今二十七·二十八日 府民館에서
37	1938.08.19	鬱火가 一掃明朗해지는 爆笑隊 大行進의 밤. 一流漫談 才談家 總動員 來二十·二十一日 府民館에서, 卜惠淑 申不出 朴春載 孫一平 申카나리아 金元浩 申銀鳳 出演(寫)出演者 諸氏
38	1939.03.16	支局設置 十週記念 漫談大會 大盛況. 去十一日 本報安東縣支局에서 申不出을 초청하야
39	1939.10.10	出征軍人遺族招待 慰安漫談會 開催. 長湍에서 去七日에 申不出 徐廷沃等 出演(寫)當夜광경
40	1940.01.07	漫談과 野談. 本報水原支局主催 今七日 유추강 신불출을 초청
41	1940.06.08	談友會主催 漫談·野談大會. 來十日부터 三日間 第一劇場에서(寫)演士 申鼎言 申不出 庾秋岡

Sin Bul Chul's art works and the meaning

Kim, Kyung—hee

Sin Bul Chul is a good talker. He works in various fields of activity. The early days, he plays a actor and in person creates dramas. He becomes famous a comedian. He moves the audience to laughter and comments on current topics. He is a writer with humor and zest. He made up funny stories with homonyms and indirect speech.

He maintains that 'mandam' is made up wit and critique of reality. And he points that drama is equipped with requirements—the beauty and the popularity of fine arts. He have with radicalism.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he makes every effort for people's joy. After he goes to North Korea and makes a tongue—slip. So he died a miserable death.

Keywords : Sin Bul Chul, good talker, humor, critique of reality, *mandam*